

2019년 5월 26일 주일설교 : 예수님께 배우는 기도3	
마 6:7, 8	기도는 설득이 아니라 오히려 앞섭니다

❖ 시작하는 말

우리는 더러 기도를 설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 애쓰거나 그 분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할 필요 없이 그저 아버지이신 그 분 앞에 앞서고 그 분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 중심 되는 말씀

1. ()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나는 5절과 6절에서도 기도의 중요성을 나눴습니다. 5절에서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 기도하고, 그래서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고 상을 받으면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6절에서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포장하지 말고 나 자신 그대로를 보여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풀어 놓으면 안됩니다. 하나님께 풀어놓아야 문제를 해결 받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복잡한 것을 묻기 전에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부터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눔 질문) _____

2. ()처럼 기도해서는 안됩니다

7절에서 또 예수님은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방인은 구체적으로 이교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저들이 저들에 신에게 기도하는 그 모습과 같이 너희는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특별한 문구, 주문과 같은 어떤 문구를 반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횟수를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반복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어떤 문장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고 기도하고, 내 말을 통해 주님을 감동시킬 목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기도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포인트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얼마나 간절해야 주님이 들어주실까요?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절절함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나눔 질문) _____

3. 하나님이 ()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가정에 대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이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이 결정하고 우리가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에도 있어서도 기도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는 태도로 기도해야 합니다.

나눔 질문) _____

❖ 정리하는 말

우리는 얼마나 중언부언하며 기도합니까? 얼마나 중언부언하며 살아갑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상한 심령 그대로를 가지고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기도하듯 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이미 구하기 전에 나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 환영의 시간(Welcome) : 행복한 기억 나누기

◆ 임재찬양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x2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x2

◆ 마음문 열기 한주간 감사나누기, 게임

2. 경배의 시간(Worship) : 복음성가나 찬송가로 경배하기

◆ 찬송가 “나의 생명 드리니”(찬213)

- 1)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 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 2)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 3)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 4)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 5)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 쏟아놓는 기도 : 나의 죄, 나의 아픔, 나의 두려움, 나의 걱정

◆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3. 말씀 나눔의 시간(Word) : 구체적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

- ◆ 말씀 나눔 및 결단의 기도
- ◆ 기도제목 나눔 및 합심기도

4. 사역의 시간(Works) : 역사하시는 주님께 기도하기

- ◆ 교회를 위한 기도 - 담임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해
- ◆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 한반도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위정자를 위하여
- ◆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 해외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